

① 인사말(1-2)

1.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 베드로

수신자: 흩어진 나그네 (① strangers in the world-임시 체류자 ② scattered)

2. 왜 흩어졌을까?(6)

3. 수신자에 대한 베드로의 2차 호칭(2절)-()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피뉘림을 얻기 위하여

②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3-5)

1. () 하사 ()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3)-현재

1) 이렇게 하신 근거, 즉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2) 어떻게? (through what?)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댓가가 무엇인가?

3)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진정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근거)가 무엇인가?

2.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천국, 구원)을 잇게 하셨기 때문(4)-미래

1) 이 미래의 기업(구원, 천국)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가?

2)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음. (5) 무엇으로?

③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6-12)

1.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구원, 보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세계는 어떠하다고 말씀하는가?(6)

2. 이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2절/

3-5절/

3.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은 얼마나 오래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가?

4.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런 시련의 유익(기능)이 무엇인가?(7)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과 불로 연단된 금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이런 시련의 결과가 무엇인가?

5. 시련을 당할 때(약 1:2-6)

1) 약 1:2-4

2) 약 1:5-6/고전 10:13

6.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1) 믿음으로써(believing-8)

2) 믿음의 결국(끝)을 받아들임으로써(receiving-9)

7.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 본문의 내용으로 기도하자.

3-12절: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
13-25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책임-거룩과 형제사랑

① 거룩에의 초대(13-16)

1. 13절: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을 가지라(바랄찌어다)

무엇을? 은혜를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구원, 상급)

어떻게 함으로써?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써

①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소매를 걷어붙이다.

② 근신하다

*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 벧전 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 14-16절에는 어떤 명령이 있는가?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레 11:44-45)
이 구절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다.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은 (거룩)이다.

정리를 하면

“너희는 산 소망(1:3)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신 은혜(구원, 상급)를 바라보고 부르심
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드러내어라.(live out)”

② 위의 명령이 실현 가능한 이유(17-21)

1. 17절에는 어떤 명령이 있는가?

2. 왜? (외모)로 보시지 않고(편견, 편애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
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relationship)를 회상시키는 동시에 그 교제에서 나오는 책임 있는 삶(responsible living)에로의 부르심을 상기시킨다.”

3. 우리의 구원,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는가?

- 1) 18-19절
- 2) 22절
- 3) 23절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거)의 근거(19)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현재)과 소망(미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과 요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신분(의인-justification)의 변화만 아니라 생활(의로운 삶-sanctification)의 변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근거이다.

[3] 형제사랑에의 초대(22-25)

*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강조 되는 단어: 순종

1. 두 가지 순종에의 부르심

- 1) 개인적으로는 거룩(14)
- 2) 남을 향하여서는 사랑(22)

2.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 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가?(22)

3.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순종, 희생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형제 사랑의 근거와 동기이며, 또한 가능성이다.

4. 우리를 구원케 한 진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23-25)

- ① 썩지 않고 영원함
- ② 살아있는 말씀(living word-23); life-giving word. 생명을 주는 말씀
- ③ 씨-제대로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특징

거룩과 형제 사랑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명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들, 즉 1)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2) 항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반석같이 견고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의 기초가 된다.

* 1절/그러므로: 거듭났으므로(1:23),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1:16-25)

1. 성장하라(개인적으로)

1) **버리고**-악독, 꾀술,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영적 성장/거룩과 형제 사랑/연합의 5대 적) 남을 해칠 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방해.

2) **사모하라**-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났으니까(1:23)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중생을 가져다주는 말씀(1:23)/ 동시에 자라게 하는 말씀

* 단순하지만 분명한 영적인 원리 *

- 1) 갓 태어난 아이(중생)는 출생으로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 2) 갓 태어난 아이(중생)는 반드시 젖(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 3) 우유(말씀)를 먹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

3절-주님이 인자하시다(The Lord is gracious)는 사실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를 맛 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2. 연합하라(전체적으로)

- 1) 너희들은 지금
 - 신령한 집으로(성전)
 - 신령한 제사장 세워져가고 있다.
 -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전	성전	* 우리(혼자가 아닌 함께)
제사장	레위출신 제사장	* 우리
제물	흠 없는 짐승	*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서-거룩, 사람 사이에서-형제사랑, 연합)

* 파격적인 선언: 성전, 제사장, 제사.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장소, 사람, 행위였다. 그런데 일반 성도,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2) 어떻게

- 예수님께로 가까이 옴으로써

① 산 돌: (a)살아있는 돌(living stone), (b)생명을 주는 돌(life-giving stone) 자신이 살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게 하는, 남에게 생명을 주는 돌.

② 모퉁이 돌

- 사람들에게는 버린바 되었으나

-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보배로운

③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 성경한 집 됨에 필요한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 ◆

1) 모퉁이 돌(예수님)

2) 영적인 연합. 이를 위해서는 산돌이 되어야 (산돌에게 와야 산돌이 됨.)

올바른 개인의 영적 성장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 연합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화(연합, 결합)에는 단순히 착한 인간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희생(제사) 같은 희생이 필요하다.

▣ 개인 성장과 연합의 관계 ▣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에는 영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한 개인의 영적 성숙은 개인의 경건 생활 정도에 의해 판단되기 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대인관계)에서 나타나며,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 진정한 영적 성장(성숙)이 이루어진다. (엡 3:18-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필요한 두 가지 ▣

()이 필요하며 개인의 영적 성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합에는 ()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연합-성전으로 지어짐)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

4과 자유로운 복종에의 초대(1) (벧전 2:11-25)

9/8/07

1:1-2:10은 교회 안에서의 삶, 성도 개인의 삶,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삶에 대한 것이었다면 2:11-4:11절까지는 교회 밖(세상 속)에서의 삶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의 삶에 대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11-12)

1) 거룩한 삶-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11)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육체의 정욕은 이 영혼을 거스리고, 병들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죄가 무서운 것은 지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때문이다.(시 51:11-12)

2) 선한 행실(12)

이방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_____와_____ (임시 거주자)임을 기억하며

* 하나님의 _____ 날(세상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Not only from the world, but into the world(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베드로가 권하는 삶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존경 받는 착한 삶을 말한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다 더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생활 원리는 육체를 중시하여 정욕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인 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영혼을 중시하고 하나님과 이웃 중심적인 삶이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란, 육신보다는 (영혼)을 생각하는 삶,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삶,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삶,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다. 이런 불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1) 소극적으로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리하고(from the world-소급) 2) 적극적으로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into the world-빛)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세상에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1.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1) 왕과 왕이 보낸 방백-당시에는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와 관리들

▶ 롬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의 명을 거스림

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북한의 김정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반성경적인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반정부 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한 데모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3) 정부(당시 로마 정부)가 강압적이고 정부 관리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주님 때문에) 순복하라고 하였다. 반기독교 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의 제도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순종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❶ 주님을 위해서(13절): 주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칭찬)하기 위해 세우심.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골 3:23)

❷ 그리스도인들은 반국가적이고 불순종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당시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15절)

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 때문에(16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유대교의 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 모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다.

악한 자나 핍박자도 하나님을 위해(하나님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높은 권세자시요, 더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2. 주인에게 순복하라

1)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2) 순종의 이유

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직한(acceptable)것이기 때문(19)

②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21)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③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21-25)

- 마땅히 형벌(고난)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 입을 열지 않으셨다.(사 53:9)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어때서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은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3) 내세에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4)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 눌린 자(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3. 남편에게 순복하라(1-2) 특히 불신 남편에게

- 1) 이와 같이-앞의 정부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똑같은 단어)
- 2) 왜?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 3) 어떻게? 주를 위하여(2:13), 하나님을 생각함으로(2:19), 두려움(존경)이 있는 정결한 행동을 볼 때 (2-purity with fear)

이 두려움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말씀보다 더 강력한 아내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구원 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수단은 아내의 복종하는 삶이다.(without a word by the behavior)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복종보다 강력한 영혼 구원의 수단은 없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고하게 할 수도 있고 거부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하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도(말씀)를 순종치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남편의 귀를 공략(공격)하지 말고 눈을 공략하라. 말 안 듣는 사람을 말 듣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순종)이다.

털음은 개인적인 경건의 열심이나 봉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털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진전된 이유(3-4)-아내의 새 단장품들

- ① 당시의 3가지 단장: 머리, 보석, 좋은 옷-외모단장
- ② 새로운 단장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gentle and quiet spirit)

불신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장보다 좋은 단장은 없다. 위적인 아름다움은 절대 남편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5) 남편 순종이라는 내적인 단장을 한 모델(5-6)-(사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창 18:12)

바울은 남녀 성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했지랴(롬 4:13-25) 베드로는 오늘날 여 성도들을 사라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4. 아내를 귀히 여기라(7)

1) (지식 -understanding)을 따라 동거하라(live together)-어떤 지식?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2) 귀히 여기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NIV "Husbands, be considerate... and treat them with respect...

질문 있습니다!!!

과연 여자(아내)는 연약한가? 여자가 더 오래 사는데...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 쉽게 상처받음. 쉽게 영향을 받음. 유혹도 잘 받음(하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세가 순종이었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다. 아내/여자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살라는 것이다. 여자(아내)는 ①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며, ②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companion)라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함께 살 자격이 있다.

3)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12절과 연관)

또 질문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사랑을 유발시키는가,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순종을 유발시키는가?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가?

5.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 내향적으로(8)-마음을 같이하여 체휼, 형제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하라.

2) 외향적으로(9)-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3) 왜? ①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며 ②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4) 어떤 복? 생명, 장수, 좋은날

5) 이 축복 약속의 확실한 근거(12)

*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잠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 마 5:43-48

He sees all, knows all, and is always present. God is watching us.

1. 선행과 핍박①

1)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2:11-12 마5:16-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 선한 행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3:9)

2. 선행과 핍박② (13)-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3. 선행과 핍박③ (14상)-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 그러나 혹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다.(마5:10-11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시다. 그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애매한 고난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라.(3:9, 12)

4. 선행과 핍박④ (14하-16)-그러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 *

1) 그들의 헐뜯음을 두려워하지 마라.(14하)

- 마 10:26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 사 8:12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2) 하나님을 너희 두려움으로 삼으라.

주를 거룩하게 하라(구별하라) 주를 주 되게 하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예수님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 사 8: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 두려워하는 대신 승리의 소망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① 미래적 승리와 상급만 아니라 현재적 승리와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순간에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담대하지만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방어가 아닌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에 대해 악평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로 인해 부끄러움

을 당하도록.

5. 선행과 핍박⑤ (17-22)

만약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보다 낫다.(17)

1) 예수님의 모범(18)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죄인)을 위해 고난(죽음)을 당하심. 예수님은 선을 행하신 분이시므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고난을 당하심.

*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 ① 성육신 전,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전하심
- ②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의 불순종자들에게 전하심
- ③ 옥에 실제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궁극적인 최종 승리를 선언하신 것.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영으로 사신 후에(부활 후) 어떻게? 영(성령)으로, 어디에? 옥에, 누구에게? 노아시대의 불순종의 영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의 방법

- 노아시대-홍수(물),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구원하심
- 예수님-엄청난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심.
- 오늘날-세례(물)

노아의 홍수=예수님의 부활=우리의 세례

오늘 노아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던 중 든 예화이다. 그러므로 이 예화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특히 애매한 고난(선하게 살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멸음을 지켰던 8명은 결국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미 지옥 갓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자들, 비록 그들이 8명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노아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을 멸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멸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3:16)과 (산 소망-1:3)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또한 그 고난을 가치 있게 해준다.

1.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자세)로 감옷을 삼스라

1)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 벧전 2:20-23
- 마 26:38-39

2) 신앙생활(Christian life)에 있어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1하, 약 1:2-4)

3) 예수님의 자세로 고난을 대할 때 오는 유익(결과)-2절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때를 살게 함.

고난 보다 더 심각한 것

감옷은 전쟁 용품이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반 한다: 사람의 정욕(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은 사실 육체의 고난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전쟁이다. 육체의 고난(시련)의 본질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4) 왜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하는가?(3)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 받은 성도가 구원 받기 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유익하다.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심을 더럽혔는가? 얼마나 남을 해롭게 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며 살았는가? 이러한 삶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가?

5)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때 불신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인가?(4)

- ①
- ②

6) 불신자들의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5)

7) 5절의 내용이 누구에게 이미 전해 졌는가?(6)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이 법칙에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인가?

2. 종말 신앙예의 초대-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1) 기도하라(7)

-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① 정신을 차려라
- ② 근신하라(절제-Self control)

2) 사랑하라(8)

- 어느 정도로?
- 어떻게?
- 사랑의 유익?

탕자 비유에 나타난 세 가지 용서

제 1 용서-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미리 하신 용서

제 2 용서-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백할 받는 용서(용서 받은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요일 1:9)

제 3 용서-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비로소 깨닫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 용서 받기 위해 용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남을 용서해 보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3) 대접하라(9)

- 어떻게?

4) 봉사하라(은사를 실행하라)

* 은사의 두 가지 특징

- ① 모든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 ②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 당신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불시름을 이상치 여기지 말라, 왜?

1)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12)

* 그 시험들이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성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신뢰)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불(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

2. 소치려 기뻐하라, 왜?

1) 그 고난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

- 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참여하시는 통로이다.
- ②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conform to Jesus)
- ③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곳

* 참례(코시노니사)

-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떤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 성찬식: 예수님의 피, 몸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다.

2) 그리스도의 고난에의 참여는 그의 부활(기쁨, 영광)에 참여한 것과 같기 때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기쁨이 보장되어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2천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고난을 당하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사건이다. 혹, 이 땅에서는 아낀 수 있어도 마지막 날에는 특권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 고난과 기쁨은 항상 함께 묶여져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쁨만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미리 기뻐하라고 하신다.

(찬 360장) “많은 영광 보며 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십자가 전에 변한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혹시 부활의 영광이 없다하더라도(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자체로 값진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보장 되어 있다.

(찬 135장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 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힘찬 십자가 붙들겠네”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 day for a crown.

3)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게(하나 되게)해 주기 때문

-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12)

- 고전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 갈4: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3. 복된 고난과 부끄러운 고난(14-1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범죄함으로 받는 고난(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 간섭)

4. 불신자의 고난/신자의 고난(17-18)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18)-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여 다시 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17).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 받는 것이 심판의 하나이다. 거짓 신자들을 가려내시고 참 신자들에게는 더 큰 열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심판)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심판을 베푸셨다면 마지막 불신자들에게는 오죽하시겠느냐? 너무나 분명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

잠 11:31 보라 의인이랴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랴

기도 제목

- 박해 받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위해

1. 장로들에 대한 권면

1) 이 편지의 발신자인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1절)

- ① 함께 (장로) 된 자
- ②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 ③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2) 갈라디아 2:9에 의하면 베드로는 당시 초기 기독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여김 받았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당시 교회의 장로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 의해 안수 받고 가르침과 지도를 받던 자들이었다. 이런 그가 자신을 “너희 장로 중의 한 사람인 나 베드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3)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나? 사도행전 4:18-20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자.

* 증인=순교자라는 말로도 쓰임

4)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였다.(마17장) 누가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가?(4:13)

2. 권면의 내용

1)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2) 누구의 양인가? (요 21:16)

2) 양을 치는 목자의 자세 3가지(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막 10:42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 빌3: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힘에 의한 억지 복종이 아닌, 본을 보여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라.

찬 431장 3절 성서가사

Since Thou on earth hast wept, and sorrowed oft alone,
If I must weep with Thee, my Lord, Thy will be done.

3) 위의 3가지 자세 중에서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4) 이 권면에 대해 어떤 약속이 있는가?(4)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양(내 자녀) 어디 있니?”라고 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양(자식)을 양육해야 하겠지요?

3. 젊은 자(교인)들에 대한 권면

1) 젊은 자(교인)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5)

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② 서로(모든 사람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2)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무엇이 젊은이들을 순복하게 하는가?

참된 권위는 본에서 나온다.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닌 모범을 통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이 참된 순종이다.

3)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구절이 기억나게 하는 사건(장면)이 무엇인가?
(요 13:4-5, 15)

4) 왜 서로에게 겸손해야 하는가? (잠 3:34)

겸손: 장로들(상대방)의 본을 보고 순종하는 자, 즉 위에 있는 자들, 연장자, 장로, 상대방이 본이 되지 않더라도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 겸손이다.

교만: 장로들(상대방)의 본을 보고도 순복하지 않는 것, 즉 그들이 본을 보이지 않지않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고 순복해야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1. 또 다른 겸손세의 초대(6)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라.

1) 5절의 겸손과 6절의 겸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각각 누구에게 겸손 하라는 것인가?

5절-

6절-

2) 왜 겸손해야 하는가?

3) ‘하나님의 능하신 손’하면 어떤 것(사건)들이 기억나는가?

4) 때가되면 높이시리라하면 기억나는 사람은?

2. 겸손과 섬겨와의 관계(7)

1) 결국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염려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겸손의 결과가 순복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2)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3) 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던져버리다-cast out) 하는가?

- 6절:

-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 / Who cares? God cares.

염려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자신이 care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환경 대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을 통행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요셉의 예)

4)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協力)과 합력(合力)의 차이

3. 맡겨버림

1) 수 3:15-16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넌치더나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밧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넌새”

2)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였다.

* 인디아나 존스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우리가 연려하는 이유는 우리 밖에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그 무엇 때문이다. 우리 밖에 뭔가를 채웁으로써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웁으로써 연려를 없앨 수 있다. 그 무엇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가 믿음의 크다.(백부장, 바디메오)

4. 염려와 평안 사치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빌 4:6-7)

기도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성경 밖으로 모셔오는 방법이다. 말씀이 시멘트라면 기도는 (물)이다.

하가점으로 하여금 싸우시게 하라

결국 사탄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우는 사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사탄 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려를 신경쓰시도록 우리의 연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맡겨버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와 말씀의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진다.

* 아빠: (8살 난 딸에게) 만약 네가 맨하탄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니?

1. 사탄 꾀대로 살기(87)-그리스도인의 염려의 배후에는 결국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 1) 대적(원수)-보이지는 않지만 강하고, 간사하다(공중의 권세 잡은 자)
- 2)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닌다.(He works and walks)

사탄, 단지 우는 사자일 뿐이다

사자가 우는 것은 겁주기 위함이다. 사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우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사탄도 온다. 겁주기 위해(펄박, 고난) 사탄의 공격의 첫 단계는 우리 속에 겁을 넣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를 삼킨다.

한편,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중 우리는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십 년을 좌우합니다.”(균성사) 이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 사탄은 무엇을 찾아다니는가? (삼킬 영혼)

사탄의 유일한 관심사는 영혼 사냥이다. (믿음 파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에는 별로 관심 없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보다 육신에 대해 더 관심가지고 있다. 굉장히 사악하다. 굉장히 열심히.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한다. 삼킬 자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가 철저하게 연구한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으로써 우리 등이 열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① (시련)과 ② (육신의 안락)이다.

2. 사탄 꾀대로 이기기

- 1) 근신하라-진지하고 침착, 냉정하다.(호들갑 떨지 마라)
- 2) 깨어있으라-매우 주의 깊다.(기도)
- 3) 대적(저항)하라-이 대적함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방패
- 4) 고난당하는 다른 형제들을 기억하라.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런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동일한 고난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인가?

한편, 대적은 집단 데모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다.

3. 고난 제대로 이해하기

- 1)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
- 2) 그 고난은 잠시 동안이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 3) 우리가 당하는 고난 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 4)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과 함께 있다.(동전의 뒷면)

고난 보다 확실한 현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대도 지구는 돈다. 그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God cares. God rules.*

고난의 요약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고난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사탄은 고난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든지(욥의 경우)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오는 고난이든지(야곱의 경우) 어느 경우든지 상관없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사탄에게 이용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난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한 때인 동시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고난, 믿음 약해지는 기회가 아니라 강해지는 기회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 모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에 부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다. 은혜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러므로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신뢰)해야 한다.

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 끝까지 굳게 서라.

1. 발신자와 수신자(1-2)

- 1)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과 ()인 시몬 베드로 (벧전1:1-사도 베드로)
- 2) 수신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전서-흠어진 나그네)
- 3)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가?(2)

2. 하나님의 공급하심(3-4)

3절-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NIV)

- 1)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가? '신기한 능력'(신적인 능력)하면 베드로에게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일까?
- 2)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에 필요한 것들인가?
- 3) 생명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얻은 구원"이라면 경건은 무엇일까?(빌 2:12)
- 4)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 5) 영광과 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4)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 6)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에 참여하게 함.

예수님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 예수님을 **앎으로**(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베드로의 더 큰 관심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흠어진 자)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난 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가 우리의 신앙에 더 위험한 요소이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세상의 환난을 면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생명과 경건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구원(얻은 구원)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행하는 구원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한다. 세상의 썩어질 것을 벗어나는 것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덕적 타락에서의 구원을 말한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경건), 이를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주님과 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는다.

3. 그리스도인들의 책심(5-9)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미래, 현재)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가?(5)

2) 신의 성품들: [믿음]—덕—지식—절제—인내—경건—형제우애—사랑

예수님께서 다 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도 한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의 친밀한 교제(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But also-5절) 동시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준다. 그러므로 5절 이하의 신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인 동시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믿음)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단지 우리의 믿음(얻은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구원(거룩한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탁월한 도덕적인 삶)도 가능하게 한다. (풍성한 은혜)

계속 지원 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이렇게 계속 지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원시치 못하게 한다. 이런 믿음은 죄에 대해 어둡고,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게 만든다. 세상은 그를 보지만 그는 세상의 죄를 보지 못한다. 마치 눈 감고 권투 시합하는 것과 같다. 절대 이길 수 없다.

4. 경건의 장점(10-11)

1) 얻은 구원이 아닌 이루어가는 구원(경건과 거룩한 삶)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 무엇인가?(10-11)

- ① 견고한 은혜
- ② 승리적 영광에의 참여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없이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단 몇 시간만 믿은 한 편 강도도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크고 완전하다.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컬음 받았던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만큼 큰 자이다. 당시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요, 노아 등) Without making every effort, there is no gaining any ground in the work of holiness.

1. 시것을 기억하라(12-15)

- 1) 12-15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이 무엇인가?
- 2)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베드로가 끝까지 진력하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
- 3) 13절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란 무슨 뜻인가?

사람의 육체는 장막(tent)과 같다. 캠핑할 때 며칠 설치하고 집에 갈 때는 걷는다. 또한 사람의 육체는 옷과도 같다. 낮에 입고 있다가 잘 때는 벗어서 개켜 놓는다. 다음날 아침까지. 죽을 때는 육체를 다 벗어 놓는다. 부활의 아침까지. 장막을 벗을 때(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2. 확실한 증거(16-18)

4) 베드로는 지금 진리를 알고 이미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생명이 길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려고 간간 힘을 쓰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 베드로는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했나?(16)

5) 베드로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능력 있는 강림, powerful coming),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다. 초림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마 25:31, 살후 1:7)

6) 12-15절과 16절 이하에 사용된 인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7)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림(재림)의 확실성을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는가?(16)

8)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친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17) 이 말씀은 또 언제 하신 말씀인가?(마3:17)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9) 비천에 처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창13:14-18, 행 27:23-25) 당신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3. 더 확실한 예언(19-21)

10)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구약의 예언을 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구약의 예언 중에 시2:7, 사42:1을 보자.

* 시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 보다 더 확실해졌고, 변화산 사건은 이들 구약의 예언의 정확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했다. 구약의 이 예언들은 사사호이 풀 것이 아니라 신약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교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된 것이다. 만약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 자신도 구약의 예언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다행히 그런 경험을 하였다. 베드로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확실하다고"**

11) 셋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태초에는 세상은 어두웠고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얼마 후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다. ()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다시 생명이 없어졌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빛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빛은 () 빛이시고, 그 앞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빛(셋별)이 마운 속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성급하게 사사호이 해석해서는 안된다. 구약의 예언들도 이 셋별이 떠오를 때에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신약(변화산 사건)도 구약의 빛을 받아야 한다.

12) 이 말씀은 당시 고난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베드로의 권고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13) 재림신앙-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앙으로 산다면...

생각을 여는 질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단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바로 직전(1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곧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와 증인들을 계속 보내시는 반면, 사탄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1. 거짓 교사(이단)의 특징

- 1) 교활하다.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진짜 같은 가짜(짜퉁)
- 2) 가만히(슬그머니) 들어온 자. 거짓 형제(갈 2:4)
- 3)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권위를 둔다. 지어낸 말(3)
- 4) 예수님을 부인한다.(1)
 - 신학적으로-예수님의 신성, 인성. 죽으심, 부활, 재림 등 가장 기본적인 교리
 - 신앙적으로(2)-방탕. 자유방임. 탈도덕/ 예수님의 주권심(lordship)을 부인
 바른 신앙이란 단지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 5) 매우 인기 있다. (popularity) 거룩과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으므로.

2. 거짓 교사(이단)에 대한 경고-반드시 멸망한다.

1) 거짓 교사(이단)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3)

2) 거짓 교사(이단)의 확실한 멸망에 대해 베드로가 든 3가지 예가 무엇인가?

- ① 타락한 천사
- ② 노아홍수
- ③ 소돔과 고모라

3)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의 범죄 상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이들 예들, 특히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5) 눅 13:1-5의 예수님의 또 다른 경고를 읽어보자.

6)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나게 하는 최근 끔찍한 재난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자.

7) 이들 과거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 심판도 말씀하심인가?

8) 위의 3가지 예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예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9)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9)

10)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연기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는가?(10-11)

11) 거짓교사,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는 한편, 경건한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다. 경건한 자를 어디에서 건지신다고 하셨는가? (9)

참 경건

멸음 있는 자는 지옥에서 건짐 받지만, 경건한 자는 세상의 유혹에서 건짐 받는다. 참 경건은 단지 이땅으로부터 자신의 멸음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세상의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지옥의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십팔보다 무섭고, 시련(고통)을 이기는 것 보다 시험(유혹)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동시에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말세)에는 교묘한 말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사(이단)의 위협이 참으로 크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큰 위협은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육체의 정욕의 유혹이다.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를 거짓 가르침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1. 거짓 교사=(짐승)과 같다.

- 1) 이성이 없음. 생각이 없음.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함. 미련함.
- 2) 죽기 위해 태어남. 한 번 죽으면 끝. 내세가 없다. 내세를 생각하며 살지 않음.

불의한 정지기의 비유(눅 16:8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성으로(생각하며)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사는 자, 멸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런 자이다.(내 사전에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과연 내일이 아니라 내세를 생각하며 사는가?

2. 거짓 교사가 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뱀방함. 이해가 안되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비난함.

3. 그들의 결국

- 1) 멸망 가운데서 멸망함(타락 가운데서 멸망함)
- 2)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함(불의의 씨를 뿌려 불의의 열매를 거둠)
마치 낮에 연락을 즐기는 자(도덕적 타락의 대표자)가 마땅히 벌을 받는 것처럼.
- 전10: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타나 화가 있도다
- 사 5:11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4. 거짓 교사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특징

- 1) 호화롭게 연락하는 삶을 살아감(낮에 연락함-부끄러운 줄을 모름) 저희가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속임수 가운데서 연락하며, 자신들도 속아서 그런 삶을 삶)
- 2)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 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5. 시편 죄를 범한 구약의 대표인물-발람

- 1) 불의의 삶을 좋아함-가룟유다(행1:18이 사람이 불의의 삶으로 밭을 사고...)
- 2) 발람의 최후 -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민 24:25)
-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민 31:8)
-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계2:14)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은 하나님께의 선지자였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역한 자였다. 발람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영광과 부를 위해

갔다. 하나님께서는 이성 없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 그의 강을 막으셨지만, 한 번 탕 목에 끈인 그의 마음은 저의 강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는 멸망할 짐승(나귀)보다 더 이성 없는 자였고 결국 자기의 연착 중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 바깥으로 인해 그 후 이스라엘에는 유행이 일어났다.(민 25: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바깥은 모양의 향이었다)

6. 거짓 선지자들과 시들을 파르는 자들의 특징

- 1) (물) 없는 샘
- 2)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고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진다.

거짓 선지자들은 샘은 있는데 그 속에 물이 없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목말라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나 참 교사가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한다. 거짓 샘과 참 샘의 차이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진리이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참 자유를 준 생명의 물이었다.

7. 시들의 결국=(멸망)

본능에 의한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자유의 결과는 멸망이다. 타락의 삶, 방종의 삶, 거짓 자유의 삶, 본능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거짓 자유(사실은 방종)는 우리에게서 진짜 자유를 빼앗아 우리를 종이 되게 한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8.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배교자의 본질

- 1) 1:4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 2) 2:18-20 거짓 자유의 유혹에 이끌려 (멸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현재적 구원에의 초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방탕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지식을 가진 자라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의 약속(가르침)의 유혹을 받아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 방탕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타락, 거짓 자유로부터 탈출하여(exodus)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4) 이것이 현재적 구원, 내세 신앙이다.

1. 두 편지(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의 목적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1-2)
 - 마음을 일깨워(stir up)
 - 기억하게 하려함(be mindful of)
2. 편지를 마감하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가?(3)
3. 기롱하는 자(조롱하는 자)들의 주장과 확신이 무엇인가?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
4. 기롱자들의 행동의 원칙이 무엇인가?(3)
5.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4하)
6. 이들의 확신과 주장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가 무엇인가?(5)
(일부러: 의도적으로, 알고도, 결심하고)
7.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중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1) 기롱자들: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 적극적으로 알지 아니하려고 함. 2) 기롱자들에게 설득 당한 자들: 정말 모름. 그렇다면 모르고 한 죄(위의 2번의 경우)는 용서 받는가?
8. 사람들이 왜 진리(성경)를 못 믿는가? 그리고 오히려 비진리를 더 믿는가?
 - 1) 덜 논리적이므로(보다 논리적인 비진리에 의해 설득 당함)
 - 2) 일부러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
 - 3) 악한 영의 영향(거짓 것을 믿게 함-살후 2:9-12)

기롱자들의 논리의 전개

1) 예수님의 재림(말세 신탁)은 없다("재림, 신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2)왜?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로 봐서 앞으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변화는 없다. 3)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천지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그 천지가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함) 그러나 사실은 천지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하려 하지 않은 것이었다.(시 55:19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9. "천지가 창조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반론이 무엇인가?(7) "천지가 변하지 않았다고? 천만에 말씀"

10.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한 자들이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5) 그 결과가 무엇인가?(6)

물 가지고 말장난 하다가 물로 인해 장난 아니게 말했다. 물을 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보면 안 된다. 노아홍수의 물 싹판, 소돔, 고모라의 불 싹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천지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말장난 하는 사람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심판 때와 노아, 소돔, 고모라 때와 다른 점

No (ark), no (exit)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위해 쌓아 두신 것 두 가지

- 1) 악인을 위해서 진노
- 2) 선인을 위해서 상급

찬 135 후렴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 day for a crown.

11. 하나님의 심판과 천지의 멸망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만큼(사실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짐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천지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9) 심판이나 변화가 없는 기간은 사실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회개)

12.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마 24:35-39)

13.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신(신앙)과 비교해서 우리의 행동, 삶은 어떤가? 베드로의 최후,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자(1:12, 3:1-2)

1.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롱자들의 논리에 대해 베드로는 1,000=1이라는 셈법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금도 박해 받는 중동과 공산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마라나타"라는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9)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다. (창 12:41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사람의 시간 계산법이 서로 다를 뿐이다.

2. 천년을 하루 같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11)

3.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 까지. 그러나 재림이 영원히 연기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였는가?(10)

하나님께서 청하신 확실한 법칙 몇 가지

- 1)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히 9:27)
- 2)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그 날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마24:35
- 3)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히 9:27)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4.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_____.

5. 재림의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밤은 뭐하는 시간인가?

6.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마치 밤에 도적이 오듯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밤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잔다. 어지간한 소란에도 잔다. 거의 마취 상태이다. 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한다. 일단 잠이 들고 나면 아침까지는 일어나기 어렵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다.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 1) 엡 5:14-16/시 3:6. 13:3

2) 뱀전 4:7

3) 마 24:43/ 25:13

7.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가?(10, 12)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기롱자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가?(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 첫 번째 심판인 노아홍수와는 달리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10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burned up.) 모든 것이 불타 때 불타지 않고 남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이다. 불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고전 3:11-15)

9.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11-13)

10.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하는가?(14)

11. 지금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종류의 관심사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미래적 종말(재림)을 믿는 자의 마땅한 현재적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다.

12. 평강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일하라, 부지런 하라, 서둘러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그 날에 그 분 앞에 흠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주의 날이 갑자기(suddenly), 그리고 곧(shortly) 온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하고 서둘러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 엡 5:14-17절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는가?

13.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가?

1) 17절

① 우리 속에 미혹에 약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약한 우리)

② 우리 밖에 미혹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악한 세상)

2) 18절

1. Matthew Henry
2. NAC(The New American Commentary)
3. Grace to stand firm, Grace to grow (Carol J. Ruvolo)
4. NIV application commentary